

해외연수 보고서 : 북미 대학도서관의 동아시아 관계 자료의 수서와 정리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를 중심으로 -

박 선 희
(수서정리과)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동아시아자료 정리 |
| 2.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 4-1. 단행본 목록하기 |
| 2-1. Consortium의 성립과 분담수서 | 4-2. McCune-Reischauer System |
| 2-2. Consortium 회원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 분야 장서 | 4-3. 시스템의 원칙 |
| 3. 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 | 4-4. LC와 ALA의 romanization 과 그 밖의 규칙들 |
| 3-1. 역사 | 5. Asami 문고 정리 |
| | 6.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현재 거의 모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그 나라를 불문하고 온라인상에서 검색이 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호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자료가 외국의 도서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수되어, 언어가 각기 다른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본다.

이에 본 연수보고서는 본인이 6개월간 연수한 UC Berkeley를 중심으로 북미지역 도서관들의 동아시아 관계 자료의 수서와 정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미지역 도서관들 가운데 동아시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며, 물론 여기에는 대학에 동아시아 도서관이 있고, 동아시아 관련 사서가 있는 대학이 조사대상이 되겠다.

먼저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미지역 도서관들의 컨소시엄을 통한 수서정책과 UC Berkeley의 간단한 소개, 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의 역사와 이 도서관의 동아시아관계 자료의 정리 절차 및 방법, 특히 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에서 소장하고 있는 ASAMI Collection의 정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서 국내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국내서의 romanization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내 도서관에 적용하였으면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연수보고서를 끝맺고자 한다.

2.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2-1. Consortium의 성립과 분담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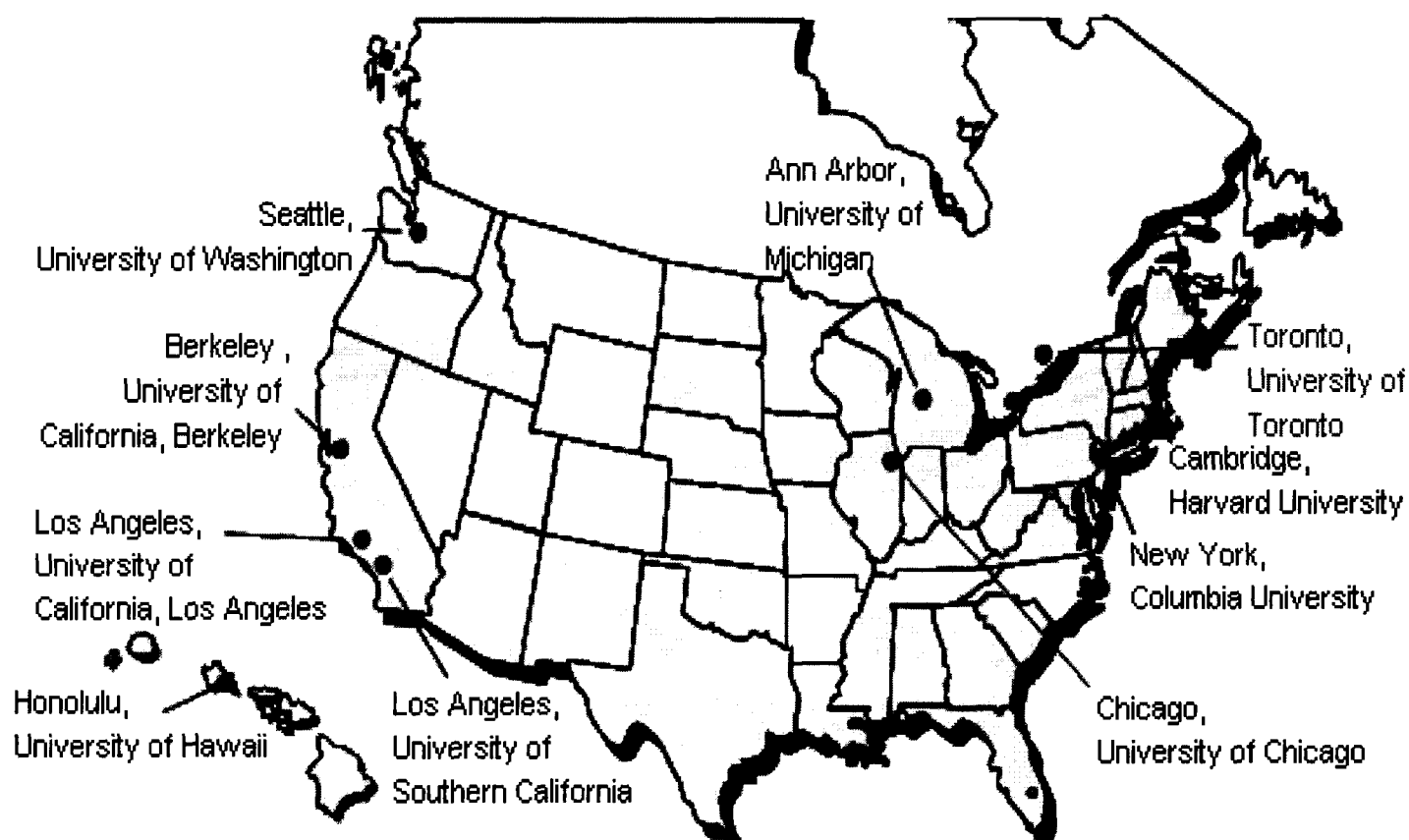
1994년에 만들어진 이 컨소시엄은 북미에 있는 한국학연구 장서를 개발하고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위치에 상관없이 한국학 연구 자료를 연구와 교수에 필요로 하는 어떠한 한국학 학자라도 도서관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1994년에는 6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olumbia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Washington) 학술 도서관들로 시작을 하여 2003년에는 10개도서관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Toronto, University of Michigan 의 추가가입) 으로 증가하였다.

이 한국학 자료의 장서개발 프로그램은 Korea Foundation에서 지원하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첫 번째 5년의 사업이 끝났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두 번째 5년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각각의 회원 도서관들은 특정하게 부여된 주제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정된

한국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미에 있는 한국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이 이러한 자원을 전국 각처의 DB나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10개의 북미 소재 도서관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각각 주제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주제영역에 따라 자료를 나누어 수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나누어진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북미지역 동아시아 도서관 분포도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강원도 지역에 관한 출판물

정부간행 출판물

영어자료

운송과 교통

한국현대사 1945년 이후

Bay지역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자료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불교

고고학

민속학

문헌정보학

한국기독교

남동지역(Georgia, Florida 등)과 산악지역(Utah, Arizona, Colorado 등)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자료

- University of Chicago

복지학

환경학

교육

국제관계

산업

Chicago와 그 부근지역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자료

- Columbia University

서울을 포함함 경기도 지역에 관한 출판물

대중문화

공연예술

한국사 1864-1945

New York과 그 부근 지역에서 출판된 자료

- Harvard University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에 관한 출판물

경영사(Business History)

법

Boston지역에서 출판된 자료

- University of Hawaii

제주도 지역에 관한 출판물

전통음악

건축 및 도시계획

외국어자료

현대사회상황

Hawaii주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자료

- University of Michigan

역사문헌

일본에 있는 한국인

통일

입국과 출국

노동관계

인간의 권리와 학생운동

자동차산업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에 관한 출판물

영화

언론과 대중매체

언어학

남가주 지역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자료

- University of Toronto

한국 지식의 역사

한국문학소설과 수필 (역사와 비평 포함)

군사학과 역사

지방정부

캐나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자료

-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에 관한 출판물

한국의 여성학

한국어신문 마이크로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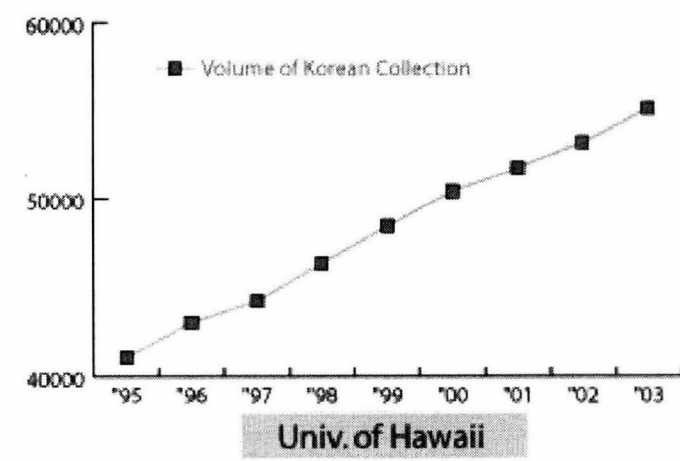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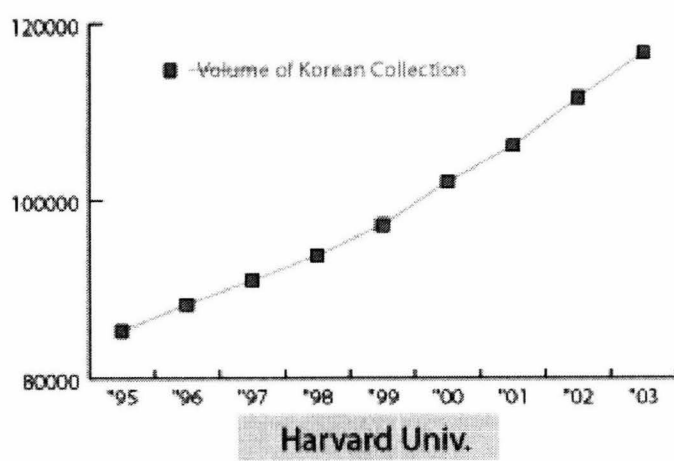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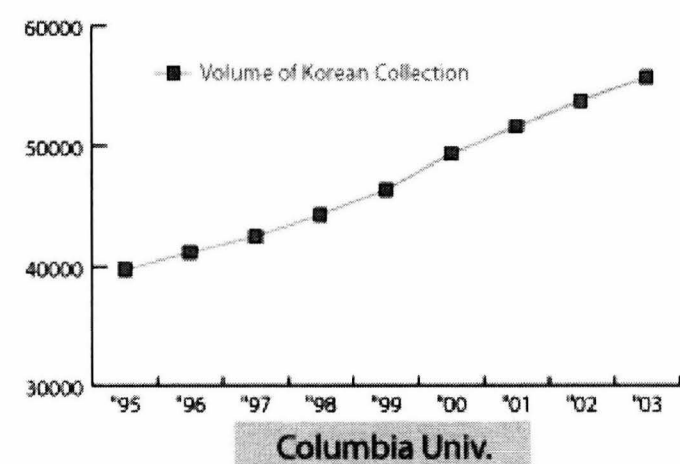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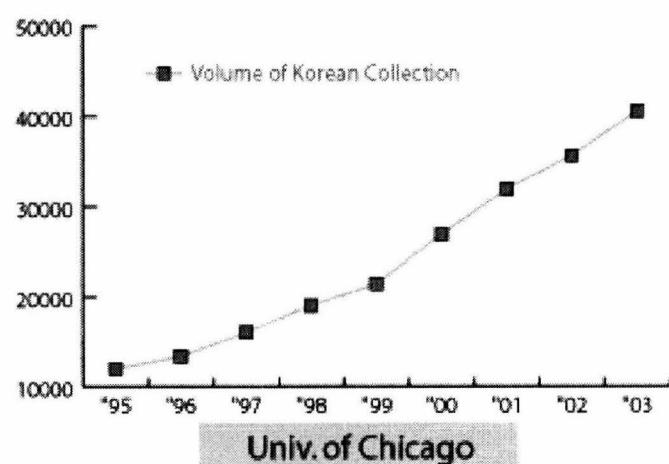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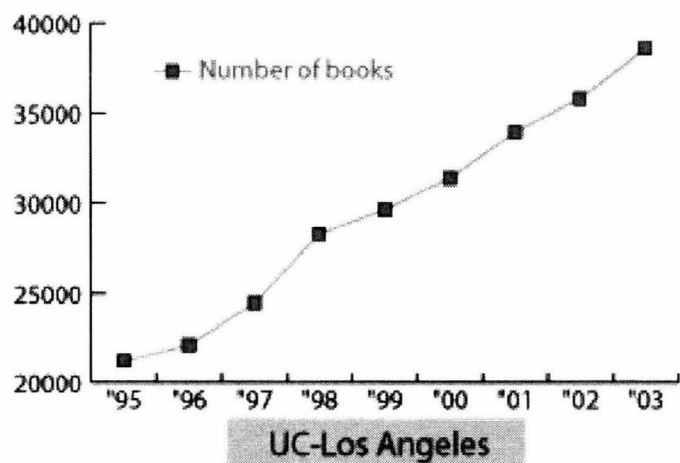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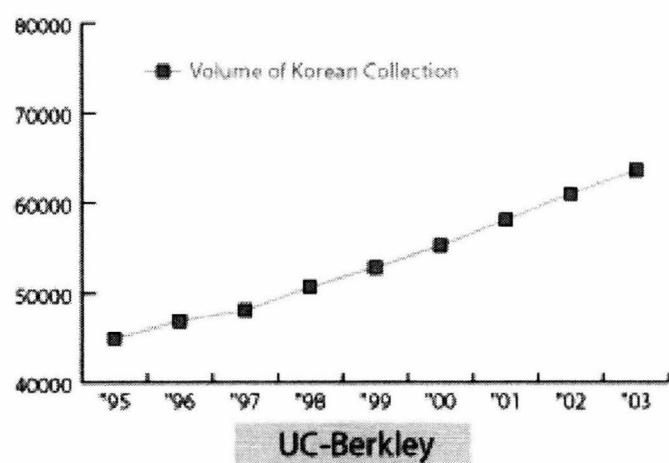
한국현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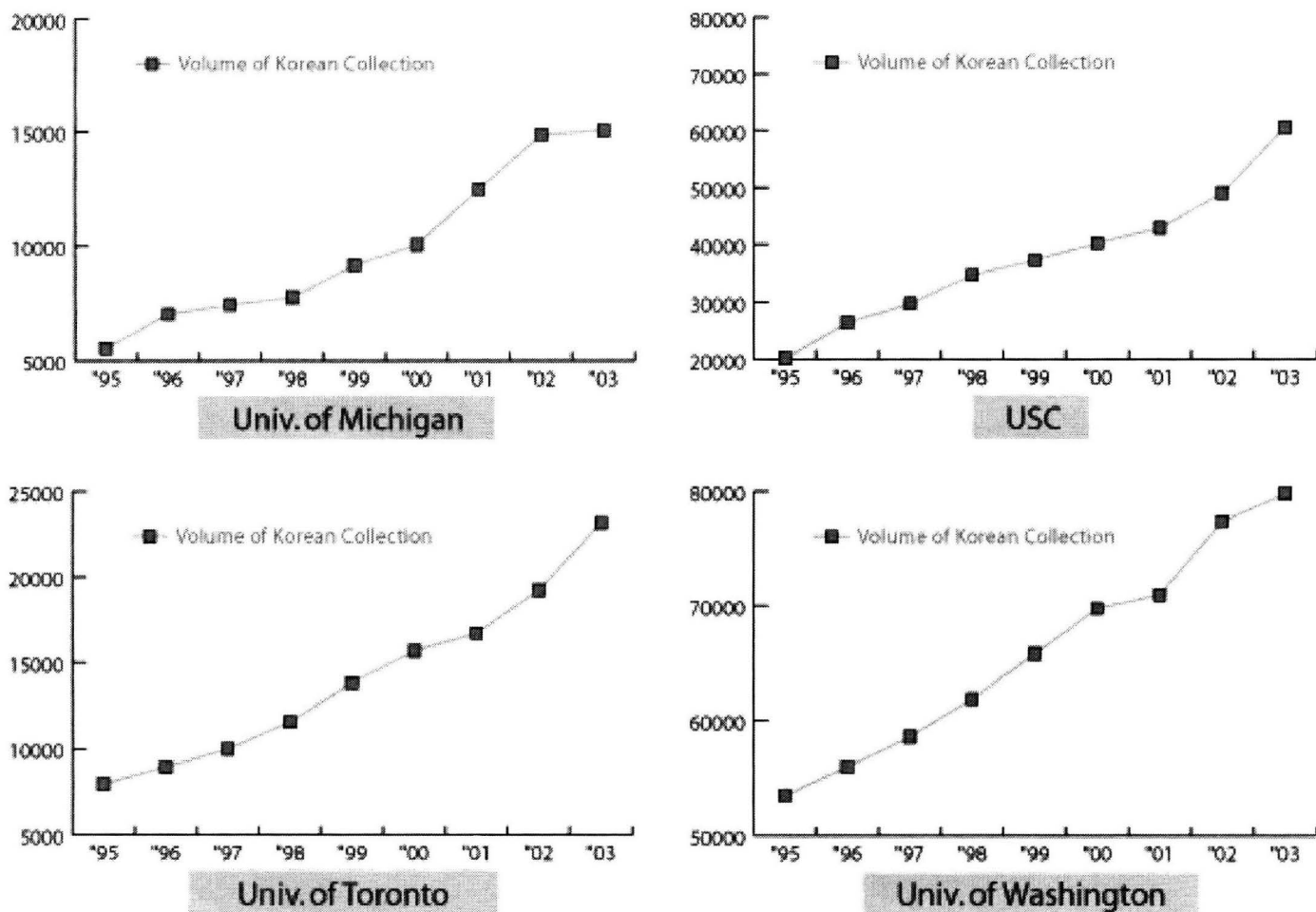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자료

이상과 같이 10개의 북미 회원 도서관들의 분포와 각각 도서관의 주제영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도서관들은 매년 모임을 가지면서 북미의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한국학 분야의 자료를 수서 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2-2. Consortium 회원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 분야 장서

그러면 이 도서관들이 1995년 (컨소시엄 시작년도)부터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 분야의 장서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북미 동아시아 도서관들의 한국학분야 장서현황
-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 발췌.

3. UC Berkeley의 여러 도서관들과 East Asian Library

California 에는 10개의 주립대학도서관이 있다. 이 10개의 UC Campuses에 100 개 이상의 도서관들이 대학의 연구와 교수를 지원한다. 그 10개의 UC Campuses의 도서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학술도서관으로서 32백만 장서와 중요한 디지털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UC Berkeley 는 1873년에 설립되었다. 다른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 대학도서관도 예술, 인문, 사회과학 그리고 기술과 순수과학분야의 연구와 교수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UC Berkeley 캠퍼스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도서관들이 있다.

첫째, 흔히 “The Library”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들.

둘째, “Affiliated Libraries”라고 말하는, 굳이 번역하자면 계열 혹은 지부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들.

셋째, 학과 도서관들과 열람실이다.

도서관 (The Library)은 Doe 도서관을 비롯하여 Moffitt 도서관, 귀중도서와 미국에 관한 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Bancroft, 그리고 인문, 사회과학, 과학 등 24개 주제분야의 도서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Berkeley East Asian Library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동아시아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이다. 1947년 설립초기에 75,000권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대략4,000종의 연속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어(만주, 몽고 등)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로서 Library of Congress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상위 2개의 두 도서관 중에 하나이다. 이들 동아시아 자료는 현재 장소 문제 때문에 세 곳으로 분산 소장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그 중 언어, 문학, 역사, 일반참고도서 등의 인문자료는 Durant Hall에 소장하고 있고, 중국의 고전을 비롯한 철학, 종교, 예술, 사회과학 및 연속간행물은 California Hall에, 그리고 필사 및 간인(刊印)시기가 다소 오래된 것 중 이용 빈도가 낮은 것은 학교에서 좀 떨어진 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에 소장하고 있다.

계열 도서관 (Affiliated Libraries)은 Berkeley 캠퍼스에 13개가 있다. 이 도서관들은 특정한 연구 분야의 장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서들은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기관이나 학과들과 관련된 특정 장서들이다. 따라서 이 도서관들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수나 직원들의 교수와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많은 학과들이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을 위한 비공식적인 도서관과 열람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도서관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단행본 900만권, 연속간행물 89,750종, 팜플렛 415,900, 6,350개의 비디오 등등이다.

3-1. 역사

도서관의 역사는 1896년 John Fryer's Chinese Library로 시작한다. 이 도서관은 나중에 대학교에 증여된다. 그 다음 1916년 Kiang Kang-hu Library를 시작으로 1919년 Horace G. Carpentier의 기증, 1920년대 E.T. Williams Collection이 Berkeley가 미국 대학들 가운데서 East Asian studies에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초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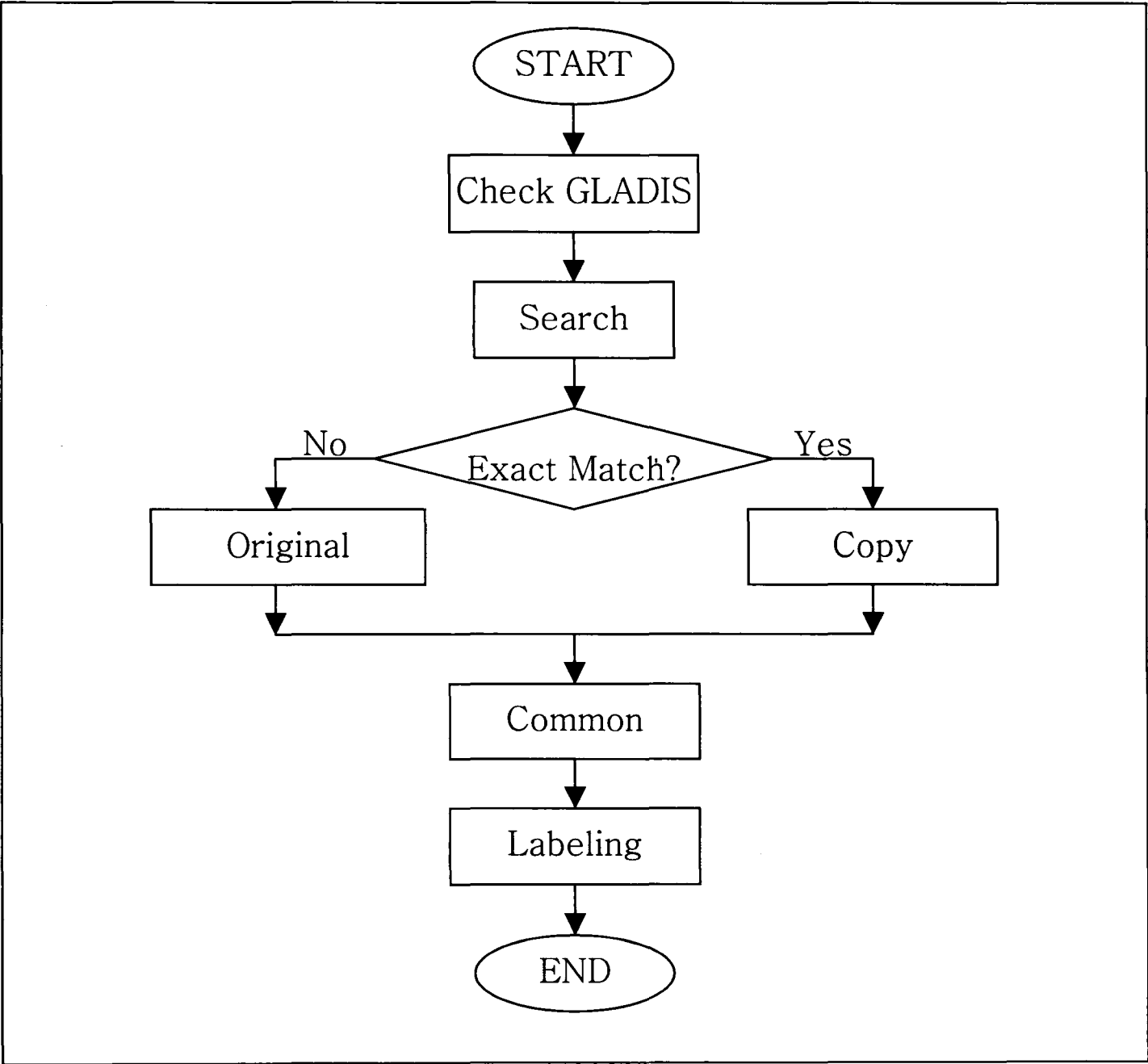
1947년에 East Asian Library는 Berkeley 대학도서관의 하나로 설립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와 합동으로 Center for Chinese Studies Library가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East Asian Library 분관은 중국 바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당대 중국에 관한 학술자료의 보고가 되었다. 또한 Berkeley가 소장하고 있는 일본의 장서는 미국의 대학도서관 중에서도 가장 많으며 그것은 대략 10만권의 Mitsui Library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2,500건의 초기 일본의 목판 지도와 7,000건의 일본 필사본, 중국 탁본 그리고 Doi Gakken, Soshin, Motoori collections이 있다. 또한 도서관은 8,850권의 Murakami Library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일본 내에서조차 경쟁자가 없을 정도의 Meiji 시대(1868-1912)의 초기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Library of Congress와 더불어 1950년대 초기부터 East Asian Library는 미국에서 일본정부 출판물의 2개의 보고 가운데 하나가 되어왔다.

4. 동아시아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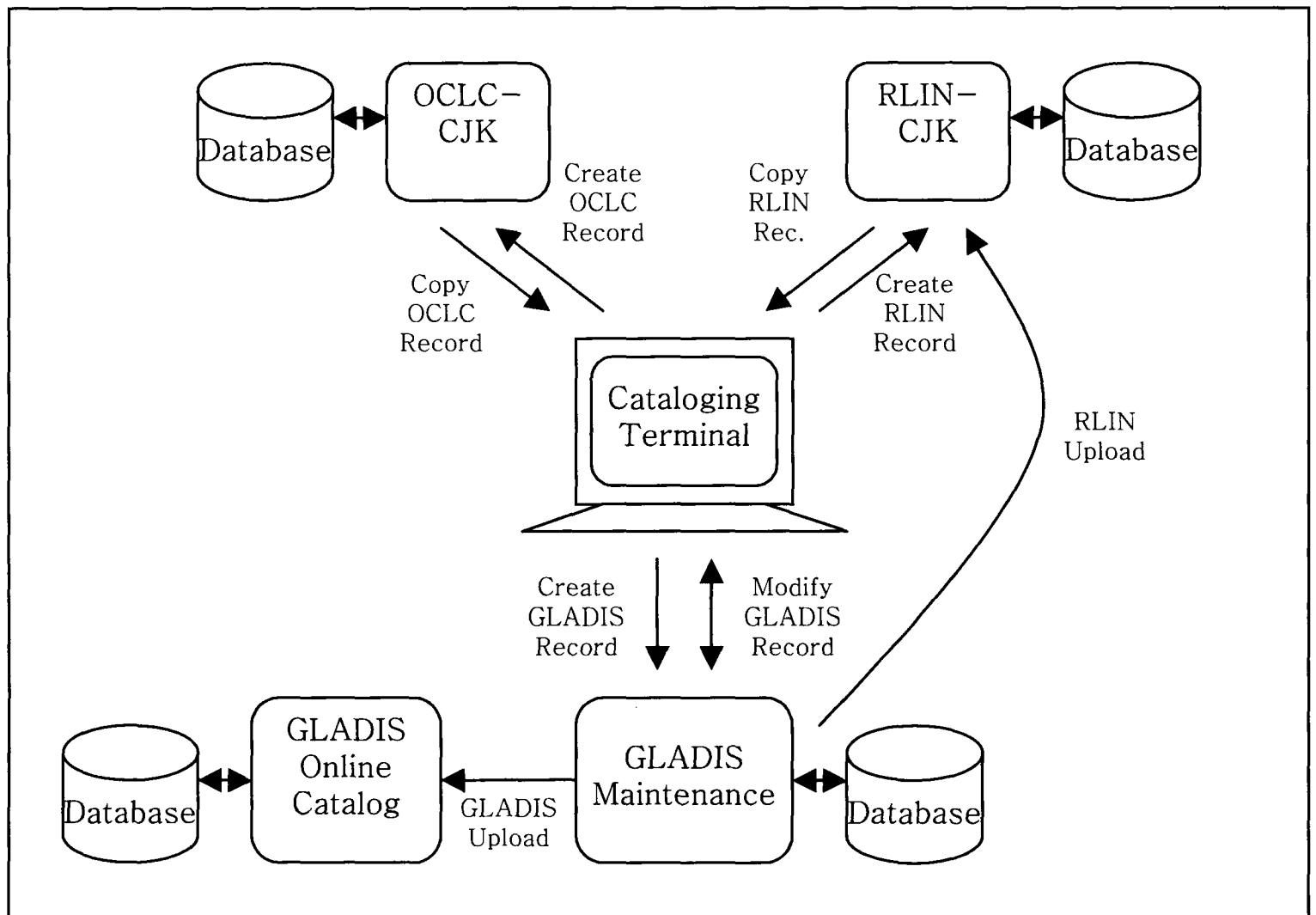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목록시스템으로는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와 RLIN(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Network)이 있다. East Asian Library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료를 자국어로 목록을 한다. Berkeley

East Asian Library에서는 단행본은 OCLC-CJK Software를, 연속간행물은 RLIN-CJK Software를 사용한다.

레코드는 OCLC나 RLIN으로부터 끌어내어지거나 만들어진 다음 이용자들을 위해 GLADIS Maintenance subsystem을 가지고 있는 GLADIS Online Catalog로 업로드된다.



[그림 3] 목록 Flow Chart



[그림 4] Berkeley East Asian Library 목록시스템

4-1. 단행본 목록하기

Original cataloging과 Copy cataloging이 있다. Original cataloging은 현행 목록 규칙과 AACR2 2002판에 따라 새 master record를 만드는 것이다. Copy cataloging은 이미 존재하고있는 record를 수정하여 자기기관의 이용자들을 위해 복사한 레코드를 만드는 것이다.

다음은 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의 Cataloging Worksheet이다. 고정장 필드와 가변장 필드에 대한 일반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Workshee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료를 사용 언어권이 이 세 나라와 다른 모든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Main Entry (1xx), Title Statement (24x), Edition Statement (250), Input(260) 등등의 필드를 CJK(Chinese, Japanese, Korean) 자국

어와 Romanization으로 입력한다. CJK 자국어는 중국어는 Pinyin(PY), 일본어는 Modified Hepburn(HP), 한국어는 McCune-Reischauer(MR) 에 따른다.

Type	a	ELvl	I	Srec	d	Audn		Ctrl		Lang	chi
BLvl	m	Form		Conf	0	Biog		MRed		Ctry	cc
		Cont		GPub		LitF	0	Index	0		
Desc	a	Ills		Fest	0	DtSt	s	Dates	2002		

040			\$cCUY (Institution code)
020			ISBN number (10 digits)
041			Language code
043			Geographic Area
050			Library of Congress Call number
090			Call number \$b .Cutter number Year
049			CUYM [EAST] (Library code, Holding location)
100	1		Last name, First name (Romanization).
100	1		Last name First name (CJK Vernacular).
240	1	0	Uniform title (Romanization)
240	1	0	Uniform title (CJK Vernacular)
245	1	0	Title proper (Romanization) : \$b remainder of title = parallel title / \$c author statement.
245	1	0	Title proper (CJK Vernacular) : \$b remainder of title = parallel title / \$c author statement.
246	3	0	Remainder of title or varying form of title proper if found in 245 (Romanization)
246	3	0	Remainder of title or varying form of title proper if found in 245 (CJK Vernacular)
246	3	1	Parallel title
246	1		Varying form of title proper if found outside 245 field. Give proper location code in a second indicator position (Romanization)
246	1		Varying form of title proper if found outside 245 field. Give proper location code in a second indicator position (CJK Vernacular)

246	1		\$i at head of title:\$a
250			Edition statement (Romanization).
250			Edition statement (CJK Vernacular).
260			Published place (Romanization) : \$b Publisher, \$c Year.
260			Published place (CJK Vernacular) : \$b Publisher, \$c Year.
300			p. : \$b ill ; \$c cm.
546			Language note.
600	1	0	Person as a subject (Romanization).
600	1	4	Person as a subject (CJK Vernacular).
610	1	0	Corporate heading as a subject (Romanization).
610	1	4	Corporate heading as a subject (CJK Vernacular).
630	0	0	Uniform titles as subject heading (Romanization).
630	0	4	Uniform titles as subject heading (CJK Vernacular).
650		0	Topical heading (Romanization).
650		4	Topical heading (CJK Vernacular).
651		0	Geographical heading (Romanization).
651		4	Geographical heading (CJK Vernacular).
700	1		Personal author added entry (Romanization).
700	1		Personal author added entry (CJK Vernacular).
730	0		Uniform title added entry (Romanization).
730	0		Uniform title added entry (CJK Vernacular).
800	1		Used when traced series is one personal author and code in 490 1 (Romanization).
800	1		Used when traced series is one personal author and code in 490 1 (CJK Vernacular).
830	2		Used when traced series is traced differently (Romanization).
830	2		Used when traced series is traced differently (CJK Vernacular).
949		1	\$v v.1-3 (year)
949			\$q order number \$m v.1 \$r barcode
949			\$m v.2 \$r barcode
949			\$m v.3 \$r barcode
987			PINYIN \$b CU \$d c

4-2. McCune-Reischauer System

1937년 여름, 두 미국 대학생이 Latin alphabet으로 한국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냈다. UC Berkeley 학생인 George McCune과 그의 소년시절 친구인 Edwin Reischauer이다. McCune은 한국어에 능통했으며, Reischauer는 언어학을 공부했다. 이들 두 사람이 McCune-Reischauer System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당시 이들은 최현배, 정인섭, 김선기와 같은 저명한 한국 음성학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어 romanization법의 이름은 이들 미국인의 이름에 따라 McCune-Reischauer System이 되었다. 그 이후로 이것이 구미 서방세계에서 한국어 romanization법의 표준이 되어왔다.

한국어를 잘 아는 사람도 한국어romanization은 어렵고 힘든 일이란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를 서구 로마자에 기초한 서지와 시스템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이 romanization작업은 필요한 것이다. Romanization을 통해서 한글이 다른 여타의 서지세계에 통합 융화될 수 있다.

한국학 연구분야에서 오랫동안 romanization 규칙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왔고 한국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 이시스템을 바꿔 왔지만 서구에서는 서지표준으로 McCune-Reischauer System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이용자들에게는, 한국어 단어와 문장이 Latin alphabet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romanization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소리(모사)와 철자(음역), 의미(번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립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보자.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자료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그 의미와 소리 모두 알 수 없는 것이다. 모사(tongnip)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려주며, 번역(independence)은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옵션 가운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어에 능통한 독자라면 한국어 모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독자라면 번역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McCune-Reischauer System은 번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음 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4-3. 시스템의 원칙

가. McCune-Reischauer System은 한국어 발음을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지, 한국어 철자를 표현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즉 한국어 활자를 한글자씩 라틴 알파벳으로 바꿔 쓰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어 발음의 모든 음운변화를 고려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나. .라틴 알파벳 문자의 소리 값의 기준은 일본어는 Hepburn system, 중국어는 Wade-Giles system이 널리 사용되듯이(현재는 중국어는 Pinyin(PY), 일본어는 Modified Hepburn(HP)), 이태리어의 모음과 영어의 자음이다.

다. 한국어는 라틴 알파벳보다 많은 모음을 가지고 있고, 특히 ㅜ와ㅡ는 로마자에서 똑 같은 소리가 없다. 그런데, o와 u가 이 모음과 거의 비슷한 반면 ㅜ와ㅡ보다는 ㅓ와ㅕ에 가깝다. 따라서 이 로마자는 ㅓ와ㅕ를 나타내는 글자로 쓰여지며 ㅜ와ㅡ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McCune-Reischauer 는 o와 u위에 발음 구별기호를 사용하여 ö 는 ㅜ를 ü 는ㅡ를 표현한다. '은 강하게 빨아내는 자음소리에 예를들어 칭찬은 ch'ingch'an 과 같이 로마나이즈 한다. ' 은 n과 g이 하나의 소리 ㅇ(ng)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 n과 g를 분리시킬 때 사용한다.그렇지만 이런 기호들은 검색을 할 경우에는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아래는 한국어 모음표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모음은 변화하지 않는다.

ㅏ	a	ㅗ	ae	ㅜ	oe
ㅑ	ya	ㅛ	yae	ㅠ	wi
ㅓ	ö	ㅕ	e	ㅡ	üi
ㅕ	yö	ㅖ	ye	ㅗ	wa
ㅓ	o			ㅕ	wö
ㅖ	yo			ㅗ	wae
ㅕ	u			ㅖ	we
ㅠ	yu				
ㅡ	ü				
ㅣ	i				

다음 표는 단독음절로 쓰이는 자음표(초성, 종성)이다.

	초 성	종 성
ㄱ	k-	-k
ㄲ	kk-	-k
ㄴ	n-	-n
ㄷ	t-	-t
ㄸ	tt-	
	(r-	
ㄹ	/n-)	-l
ㅁ	m-	-m
ㅂ	p-	-p
ㅃ	pp-	
ㅅ	s-	-t
ㅆ	ss-	-t
ㅇ	(o)	-ng
ㅈ	ch	-t
ㅊ	tch-	
ㅌ	ch'-	-t
ㅋ	k'-	-k
ㅍ	t'-	-t
ㅑ	p'-	-p
		(-
ㅎ	h-	o)

그럼 자음의 음운변화를 표로 나타낸 것을 살펴보자.세로는 마지막 음절을, 가로는 첫 음절을 나타낸다.

종성 초성	모음	CH ㅈ	CH' ㅊ TCH ㅉ ㅊ	K ㄱ	K' KK ㅋ	M ㅁ	N ㄴ	P ㅍ	P' PP ㅑ	R ㄹ	S ㅅ SS ㅆ	T ㄷ	T' TT ㅌ
모음	-	j	ch' tch	hg	k' kk	m	n	b	p' pp	r	s ss	d	t' tt
K (ㄱ)	G	kch	kch' ktch	khkk	kk' kk	ngm	ngn	kp	kp' kpp	ngn	ks kss	kt	kt' ktt
L (ㄹ)	R	lch	lch' ltch	rhlg	lk' lkk	lm	ll	lb	lp' lpp	ll	ls lss	lt	lt' ltt
M (ㅁ)	M	mj	mch' mtch	mhmng	mk' mkl	mm	mn	mb	mp' mpp	mn	ms mss	md	mt' mtt
N (ㄴ)	N	nj	nch' ntch	nhn'g	nk' nkk	nm	nn	nb	np' npp	ll	ns nss	nd	nt' ntt
NG (ㅇ)	Ng	ngj	ngch' ngtch	nghnngg	ngk' ngkk	ngm	ngn	ngb	ngp' ngpp	ngn	ngs ngss	ngd	ngt' ngtt
P (ㅍ)	B	pch	pch' ptch	phpk	pk' pkk	mm	mn	pp	pp' pp	mn	ps pss	pt	pt' ptt
T (ㅌ)	D	tch	tch' tch	thkk	tk' tkk	nm	nn	pp	tp' tpp	nn	ss	tt	tt' tt

라. 한글에서 모음이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몇몇 자음 글자들은 단어나 구에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 두개 이상의 소리로 표현한다. 따라서 각각의 소리를 표현하는데 다른 알파벳이 사용된다. 예를들어, ㄱ은 고려 or 석상 에서는 k로 , 적용 에서는 g로, 직면 에서는 ng로 romanization한다.

마. 복합어는 음운변화에 따라 binary components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han'guk munhak chOnjip (한국 문학 전집)

바. 이 이외에 몇가지 예외적인 규칙이 있다.

4-4. LC와 ALA의 romanization 과 그 밖의 규칙들

또한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와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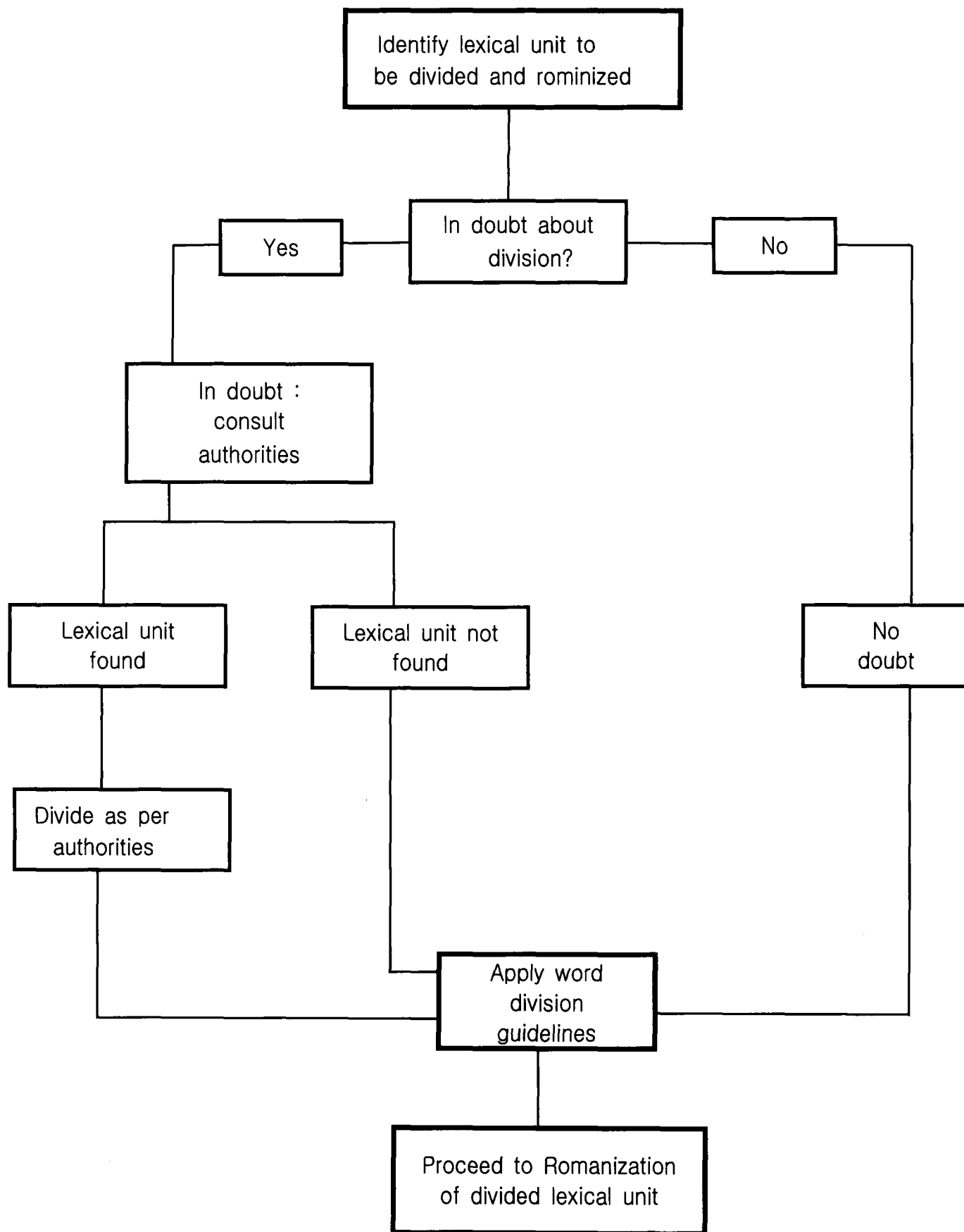
McCune-Reischauer System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중요한 많은 서지적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규칙들을 개발하였다. ALA-LC romanization은 Romanization, Word Division (단어구분), Capitalization (대문자 사용), Punctuation(구두법)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Library of Congress는 발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표준 사전을 사용한다. 단어는 이 사전에서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다.

그러면 ALA-LC romanization에 대하여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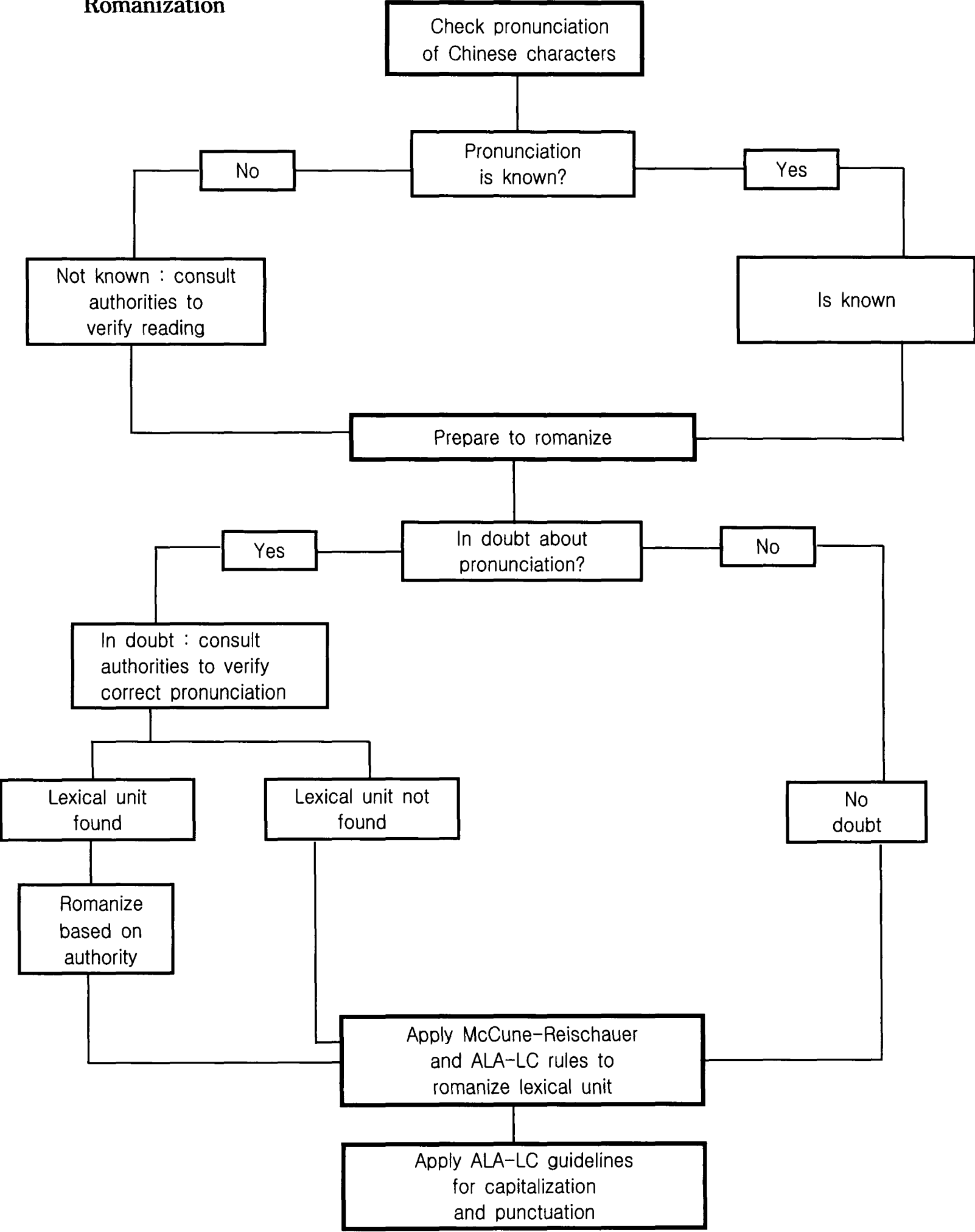
- Romanization : 로마나이제이션은 McCune-Reischauer System을 따른다. 발음은 철자와 로마나이제이션 규칙보다 우선한다.
예: 좋은은 chohun이 아닌 choŭn으로 한다.
- Word Division (단어구분) :
조사를 포함하여 각 단어는 또 다른 단어와 분리시킨다.
예: ch'owon ui kkum ul kudae ege (초원의 꿈을 그대에게)
- 복합어는 binary words의 결합으로 간주한다.
예: t'oji kaeryang chohap (토지개량조합)
- 이름은 두 글자 사이에 하이픈(-)을 붙인다. 그리고 첫 음절의 첫자만 대문자로 한다.
예: Yi Kwang-su (이광수)
- Capitalization (대문자 사용) :
띄어쓰기한 단체명은 각각 대문자로 한다.
예: Nodong Kijun Chosaguk (노동 기준 조사국)
- 띄어쓰기한 지리명은 각각 대문자로 한다.
예: Soul T'ukpyolsi (서울특별시)
- 출판물명의 첫단어는 대문자로 한다.
예: Hyondae kukchepop (현대 국제법)
- Punctuation(구두법) :
가운데 점(.)은 보통 콤마(,)로 바뀌 쓴다.
인용부호 대신으로 사용한 각괄호는 인용부호로 바뀌쓴다.
예: Si wa haebang tongin sijip (『시와 해방』 동인 시집)

다음의 두 그림은 한국어 단어 구분(띄어쓰기) 과 romanization을 Flowchart로 나타낸 것이다.

Word Division



Romanization



5. Asami 문고 정리

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 Durant Hall에 소장된 Asami(淺見)장서는 일본인 법학자인 淺見倫太郎(Asami Rintaro, 1869-1943)이 일제시대에 수집한 한국의 고전자료들이다. 淺見는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06년 한국에서 통감부 법무원의 법제관으로 보직을 받았고, 1910년 일본의 강점이후에는 조선총독부 경성고등법원의 판사를 겸직하였다. 이 사람은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법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법과 정부와 관련된 책들만 모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분야의 책들도 모아 1918년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많은 장서를 수집하였고, 귀국해서 수집한 장서를 연구하여 조선법제사고의 논문을 써서 1922년 모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것이 1920년 三井物産會社로 팔려 동경의 三井財團 장서가 되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이 재단이 해체되자 이 장서가 1950년에 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로 팔리게 된 것이다.

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이 Asami(淺見)장서를 구입하게 되자 도서관장 Elizabeth Huff는 이 장서의 이용을 위해 우선 영문기술목록의 편찬이 필요함을 깨닫고 1955년 중국 출신의 Fang Chaoying(房兆楹) 박사로서 하여금 작업에 착수케 하였다. 인쇄본, 필사본, 탁본, 지도로 900여 titles에 대략 4000권인 이 Asami(淺見)장서를 사전조사와 한국을 방문하여 자문하는 등 수년여의 목록작업을 계속하여 1969년에 영문해제목록(The Asami library : a descriptive catalogue, 196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을 완성하였다. Fang박사는 이 목록의 서문에서 romanization은 McCune-Reischauer system을 사용하고 단어구분은 Library of Congress 규칙을 따랐다고 적고 있다.

다음 그림은 Fang박사의 영문해제 목록의 일부이다.

✓ 4.5 *Karye kojūng* 家禮考證, 7 kwŏn, by Cho Hŭk 曹旭 (1545-1609). Seventeenth century. 3 vols. Woodblock.

Notes to the work on rites for scholar-official families, *Chia-li* 家禮, by the great master of Neo-Confucianism, Chu Hsi. Chu's book treats of the rites of *kuan* 冠, or capping of an official's son at his coming of age; *hun* 婚, or marriage; *sang* 喪, or mourning; *ch'ul* 祭, or the offering of sacrific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various other aspects of family life.

The book was written for scholars already well acquainted with classical literature. Moreover, there are many references to everyday matters that were common knowledge in China in the twelfth century but required explanations for even Chinese readers of later times. Hence Cho made these painstaking notes for his disciples. One of them, Kim Yuk 金裕 (1580-1658), collected the notes, edited them in 7 kwŏn, and gave the collection the present title. In Kim's preface, written in 1646, he says that the printing was sponsored by Min Ŏng-hyŏp 閔應福 (d. 1663) when the latter was serving as governor of Kyŏng-sangdo.

✓ 4.6 *Karye chinnam* 家禮輯覽, 10 and 1 kwŏn, by Kim Chang-saeng 金長生 (1548-1631). 1685. 3 vols. Woodblock.

Notes on Chu Hsi's *Chia-li*. The notes were written by Kim Chang-saeng. They were edited in 10 kwŏn of notes and one kwŏn of illustrations (*tosŏl* 圖說) by his disciple Song Si-yŏl 宋思烈 (1607-1689) and were printed in 1685. Many of the illustrations and charts are helpful to the study of the classics of rites.

✓ 4.7 *Karye wŏllyu* 家禮源流, 14 kwŏn, together with *Karye wŏllyu songnok* 續經, 2 kwŏn, by Yu Kye 俞葵 (1607-1664). Eighteenth century. 9 vols. Woodblock. Appended. *Kyesa wanghoksŏ* 葵邑往復書, 1 kwŏn, 1 vol.

An annotated text of Chu Hsi's *Chia-li*. The author made these exhaustive notes by quoting from the classics and pre-Chu Hsi writers (as *ylan* 源, or source) and also from later writers (as *liu* 流, or tributaries). The *Chia-li* was concerned only with matters in the scholar-official families. The author also collected the regulations on various matters relative to royal or imperial families and edited them into a supplement of two kwŏn titled *Karye wŏllyu songnok*.

Before Yu Kye died, he sent a copy of the manuscript in 4 kwŏn to a disciple, Yun Sŏn-gŏ 尹宣謨 (1610-1669), for further study. Yun

is reported to have expanded the work to 7 kwŏn. In 1713,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irst Deputy Premier, Yi I-myŏng 李爾命 (1658-1722), royal permission was given to Yu's grandson Yu Sang-gi 俞相基 (1651-1718) to have the book printed with public funds. Yu Sang-gi then asked Yun's son, Yun Chŭng 尹曄 (1629-1714), and grandson, Yun Haeng-gyo 尹行教 (b. 1661), to submit the manuscript for printing, but the two Yuns refused to do so on various pretexts. Finally Yu printed the book, basing it on his grandfather's original manuscripts. He published the correspondence with the two Yuns in an appended volume under the title *Kyesa wanghoksŏ*. "Correspondence in the *Kyesa* year (1713)." The letters expose the illiberality in the character of Yun Chŭng, which may serve to explain his feuds with various men of the day.

Our copy was once in the possession of Yu Ch'ŏk-ki 俞拓基 (1691-1767), a distant cousin of Yu Sang-gi.

✓ 4.8 *Nangye Sŏnsaeng yesŏl* 南溪先生禮說, 20 kwŏn, by Pak Se-ch'ae 朴世采 (1631-1695). 1718. 10 vols. Woodblock.

✓ 7-10 Explanations of Chu Hsi's *Chia-li* and other regulations and practices relating to the rituals in the life of a scholar-official. The first 17 kwŏn are devoted to questions about the *Chia-li*, the next two to regulations concerning the academies of various localities, and the last one to government rituals. The author, Pak Se-ch'ae, was a disciple of Kim Sang-hŏn 金尙憲 (1570-1652) and was recognized as a scholar, Confucianist, and a great teacher. In 1668 he was summoned by King Hyŏnjong to serve at the court; he finally rose to be First Deputy Premier in 1694. His moderation was a stabilizing force in the government during the violent factional struggles of the 1680's and 1690's. He was given the posthumous name Munsun 文純, and his name was celebrated in King Suk-chong's temple as well as in the Korean Confucian temples.

This book is a compilation of Pak's notes, letters, and other writings in answer to questions raised by his friends and disciples. The entries are dated whenever a date is known. Of particular importance as sources for study of the system of academies and local schools in Korea are kwŏn 18 and 19.

Our copy was once in the possession of Yun Ŏi-dong 尹義東, a younger brother of Yun Ki-dong 尹希東 (1729-1797, First Deputy Premier 1795-1797).

✓ 4.9 *Ŏirye munhae* 殿禮問解, 4 kwŏn, by Kim Chang-saeng 金

[그림 5] The Asami library : a descriptive catalogue의 일부분

또한 1995년 한달간 한국서지학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해외전적문화재 조사 사업으로 한국서지학자인 천혜봉교수 외 4명이 이 Asami(淺見)장서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에서는 Fang박사의 영문해제목록에 근거하여 주로 版種의 고증과 刊寫時期의 추정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분류를 전통적 四部法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이 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 美國 Berkeley大學 東亞圖書館 ASAMI文庫, 1996, 韓國書誌學會)이다.

다음 그림은 천박사 등의 해외전적문화재 조사목록의 일부이다.

經部

美國BERKELEY大學 東亞圖書館 ASAMI文庫

禮類

：上之二十六年戊子(仁祖26,1648)五月下
院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趙綱(1586~166
9)撰跋
4.19

儀禮

儀禮 卷 1~17

鄭玄(漢)編. 木版(戊申字號刻). [順宗年間]
刊.

17卷 4冊. 圖. 四周雙邊. 半郭 23.1×16.8
Cm. 有界. 半葉 10行 17字. 內向3·2葉花紋
魚尾. 32.7×21.4Cm. 線裝. 楮紙.

序:嘉靖十五年丙申(1536)夏六月壬辰國子
監祭酒呂祐(明)書

注疏序:紹定戊子(1228)正月望日蔡楊復序
印:「李村○伯用藏」,「李氏家藏」.

4.24

士儀節要 卷 1~4

許傳(1797~1886)著. 木版. 咸安:露洞之心窩.
高宗10(1873)刊.

4卷 2冊. 圖. 四周單邊. 半郭 21.8×14.1Cm. 有
界. 半葉 10行 22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29.3×19Cm. 線裝. 楮紙.

序:延安李用基謹序

跋:門生咸安趙性源謹錄

刊記:上之十年癸酉(1873)新刊于咸安露洞之心窩
4.18

禮記

禮記集說大全 卷 1~30

胡廣(明)等奉勅編, 陳澧(元)集說. 木版.
[朝鮮朝後期]刊.

30卷 12冊. 四周單邊. 半郭 22×17.2Cm.
有界. 半葉 12行 24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
魚尾. 30.7×20.8Cm. 線裝. 楮紙.

版心題:禮記

序:後學東匯澤陳澧(元)序

卷首:大全凡例,奉勅纂修諸臣銜名
4.15

雜禮

家禮 卷 1~7

朱熹(宋)著. 木版. [朝鮮朝後期]刊.

7卷 2冊. 圖. 四周單邊. 半郭 21.7×18.2C
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內向2葉
花紋魚尾. 32.5×22.3Cm. 線裝. 楮紙.

4.20

家禮考證 卷 1~7

曹好益(1545~1609)著. 木版. 仁祖24(164
6)序(後刷).

7卷 3冊. 四周雙邊. 半郭 20×17.2Cm. 有
界. 半葉 11行 19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
尾. 33.5×22Cm. 線裝. 楮紙.

序:丙戌(仁祖24,1646)九月下泮門人資憲大
夫禮曹判書兼同知春秋館事世子右賓客金瑬(1
580~1658)謹書

4.5

家禮源流 卷 1~14, 續錄 卷 1~2, 往復書 卷 1

俞笑(1607~1664)著. 木版. 順宗40(1714):
續錄:順宗44(1718)刊.

17卷 10冊. 四周雙邊. 半郭 22.4×17.3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
魚尾. 31.9×22.2Cm. 線裝. 楮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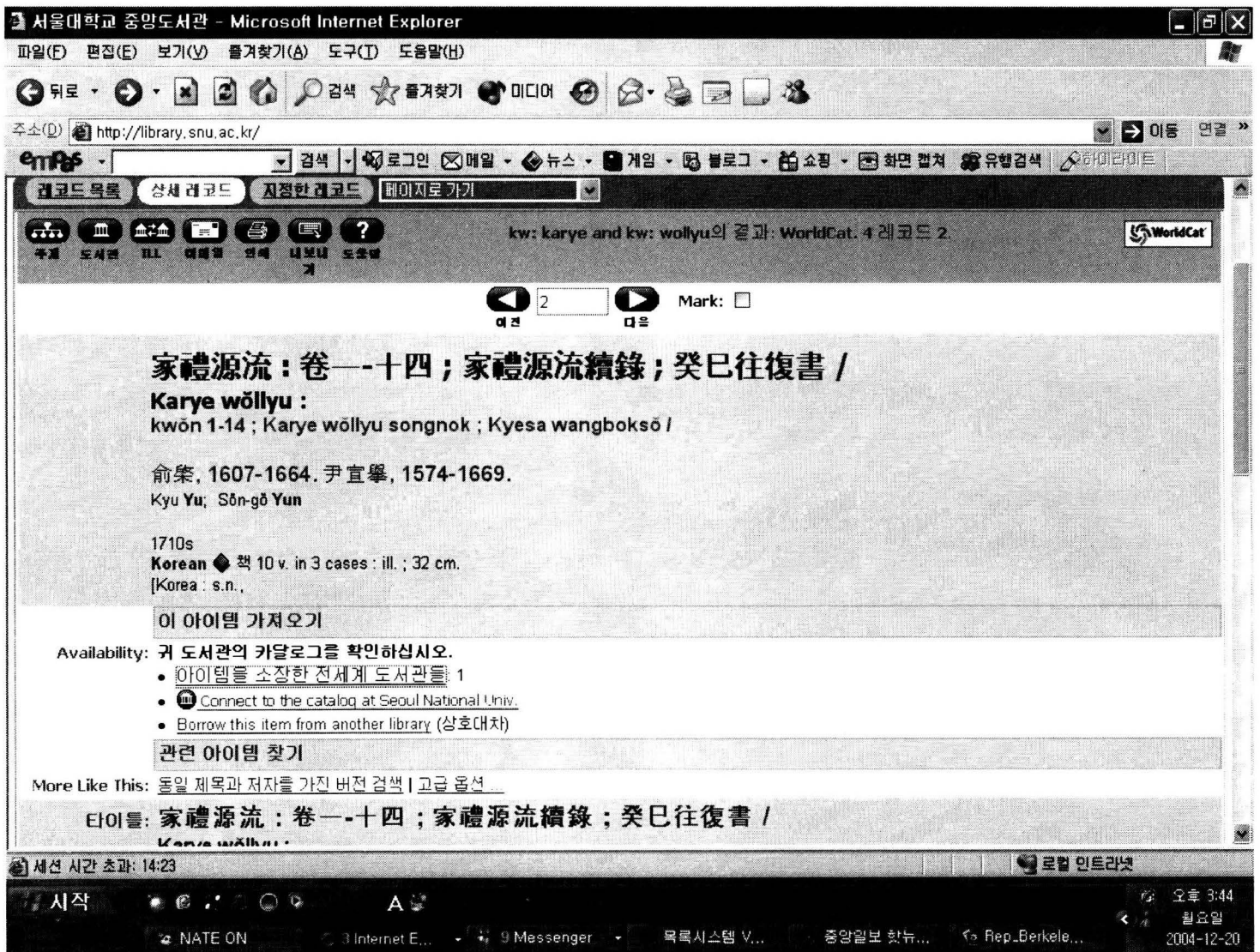
序:崇禎紀元後八十六年癸巳(1713)仲冬上
泮門人安東權尙夏(1641~1721)書.

跋:崇禎甲申後七十一年甲午(1714)仲春下
泮後學島川鄭澍(1648~1736)識

續錄跋:歲舍乙未(順宗41,1715)十月日上泮
孫[尙]相基(1651~1718)謹書

:歲戊戌(順宗44,1718)至月下浣不肖

[그림 6]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美國 Berkeley大學 東亞圖書館 ASAMI文庫의 일부분



[그림 7] WorldCat에서 검색한 ASAMI 데이터

이와 같이 중국, 일본, 한국의 학자들을 통한 여러 차례의 해제목록을 근거로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세가지 해제목록과 실물을 비교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규장각 목록과 해제,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등을 참고한 후, OCLC에 똑같은 레코드가 있는지 검색한 후 1xx와 7xx의 main 혹은 added entry, 245 field의 title proper, 250 field의 edition statement, 260 field의 place,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이 같으면 같은 레코드로 여겨 copy cataloging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original cataloging을 한다.

6. 맺음말

이상으로 북미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관계 자료의 수서와 정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학 분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도서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 수서를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따라야 할 수서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리분야에서는 들어가는 말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세계 도서관의 자료가 온라인상에서 모두 검색이 되고 상호이용이 되는 상황에서 정리업무도 이에 맞추어 한글이 다른 여타의 서지세계에 통합 융화될 수 있도록 자국어 표현 외에 romanization 작업을 병행하는 등등의 변화를 따라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국내의 서지 DB가 구미의 서지에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용자에게는 자료에 접근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